

SM, 945달러로 무려 42달러 급등!

FOB Korea 940-950달러 형성 ... 미국가격은 937달러로 22달러 하락

SM 가격은 6월11일 FOB Korea 톤당 940-950달러로 42달러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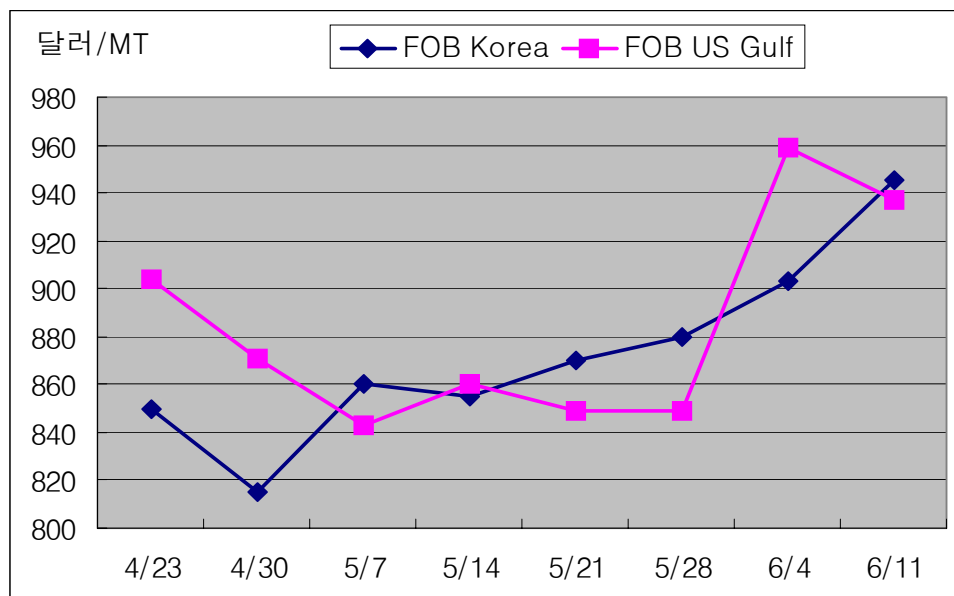
아시아 SM 시장은 벤젠가격 초강세로 미국 및 유럽의 Styrene 가격이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동반 급상승세를 나타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SM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SM 유도제품인 PS 및 ABS 재고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SM 초강세를 이끌고 있다.

중국에서는 건축 붐이 조성되면서 EPS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7-8월이 PS 수요시즌이어서 적극적인 구매가 예상되고 있다. 11-12월 완구 수출을 위해서는 7-8월부터 PS를 구매해 본격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SM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아시아에 수출해 왔으나 2004년 들어서는 미국이 아시아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강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SM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SM 가격은 6월11일 FOB US Gulf 파운드당 42.0-43.0센트로 톤당 평균 937달러를 형성해 22달러 하락했으며, 6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47.0-50.0센트를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4/06/17>